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 및 성능분석

정희원 강 현 명*, 종신회원 이 우 섭*o

The QoS Adaptive AQM Algorithm and Performance Evaluation for Multimedia Service

Hyun-Myoung Kang* *Regular Member*, Woo-Seop Rhee*o *Lifelong Member*

요 약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데이터 전송과 같은 최선형 서비스로 지원 되었고 전송 지연 및 패킷 손실이 허용되었지만 최근 인터넷 전화, 인터넷 방송등과 같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은 실시간 처리 및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도 인터넷 상에서 IP QoS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버퍼 관리 메커니즘으로 RED(Random Early Detection) 알고리즘과 같은 능동적인 버퍼 관리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평균 버퍼 길이를 이용한 한계와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D를 변형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 QoS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QoS를 요구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QoS 적응형 AQM (active Queue Management)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ns-2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분석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AQM, Buffer Management, IP QoS, Multimedia Service

ABSTRACT

Existing Internet services were almost supported by the best effort service such as the data transmission service and were allowed the transmission delay and packet loss. However, recent Internet multimedia services such as Internet phone, Internet broadcasting are required a real-time processing and high bandwidth. Therefore, many studies for providing Internet QoS are performed at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As the buffer management mechanism among IP QoS methods, active queue management method such as RED (Random Early Detection) algorithm has proposed. However, RED algorithm has a limitation of usage of an average buffer length and unfairness. So, many algorithms proposed as the modified algorithm of RED. But these modified algorithms also have difficultie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various Internet user Qo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QoS adaptive AQM (Active Queue Management) algorithm for the multimedia services that request various QoS requirements and present a performance evaluation by the simulations using the ns-2.

I. 서 론

현재의 인터넷은 비 연결 지향적인 (connectionless) 특성을 지닌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양 종 단 간(End-to-End) 패킷 전달 서비스이고 대부분이

최선형 (Best-effort)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비 연결 지향적인 네트워크 환경의 이점은 유연성과 견고성에 있는 반면, 트래픽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병목 링크로 다중화 되어 전송될 때 이들 사이의 공정성에

* 국립한밭대학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wsrhee@hanbat.ac.kr, o : 교신저자)

논문번호 : KICS2008-10-443, 접수일자 : 2008년 10월 9일, 최종논문접수일자 : 2009년 6월 7일

의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한다. 즉, 네트워크의 과도한 혼잡(Congestion) 상황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 깊은 네트워크 설계가 요구된다. 만약 부주의하게 네트워크를 설계할 경우 동적인 패킷 전달에 대하여 서비스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라우터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하여 많은 버퍼 관리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왔다^{1,2}.

IETF에서도 혼잡 발생 시 매우 큰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RED 알고리즘과 같은 버퍼 관리 메커니즘을 전개하였으며, 적절한 자원 할당을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버퍼 관리 및 스케줄링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서비스는 대부분 최선형 서비스로 지원이 되었고 안정성을 위하여 전송 지연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만 최근 인터넷 전화, 인터넷 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실시간 처리 및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도 서비스 품질(QoS)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IP QoS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최선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실시간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

하지만 앞서 살펴본 버퍼 관리 알고리즘들은 버퍼의 오버플로우를 줄여서 전송률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고, 또한 플로우 별로 관리를 하더라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QoS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다양한 QoS를 제공하는 인터넷 망에서 효율적인 플로우 관리를 위하여 버퍼 관리 메커니즘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QoS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동적 버퍼 관리 알고리즘으로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버퍼 관리 알고리즘들의 특징과 더불어 사용자의 QoS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각 플로우 별로 전송량과 무관하게 목표 패킷 손실률을 최대한 유지시켜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RED, RIO, FRED 및 BLUE 등의 버퍼 관리 알고리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들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4장에서는 ns-2를 이용한 성능 분석을 통하여 패킷 손실률, 버퍼 사용량의 관점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우

수성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버퍼 관리 알고리즘

현재까지 제안된 버퍼 관리 알고리즘들은 평균 버퍼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RED와 이를 변형 또는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는 RED^[5]와 패킷을 In/Out으로 나누어 RED를 적용하는 RIO(RED with In/Out)^[8], 여러 플로우에 대하여 RED를 적용하는 FRED 등이 있다. 또한 RED와 다르게 패킷 손실과 링크 사용률을 기준으로 하는 BLUE^[10] 등이 있다.

RED는 버퍼의 길이가 임계값을 넘으면 평균 버퍼 길이 (avg)를 기준으로 계산된 확률로 패킷을 폐기하는 방식이다. 즉, RED 알고리즘은 패킷이 도착할 때마다 평균 버퍼의 길이를 구해 정해진 최소 임계값 (min_{th})과 최대 임계값 (max_{th})을 비교하여 최소 임계값 이하이면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두 임계값 사이이면 랜덤하게 패킷을 폐기하고 최대 임계값 이상이면 입력 패킷을 모두 폐기한다^[3]. 평균 버퍼 길이는 다음과 같은 EWMA(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에 기반 하여 계산한다.

$$avg = avg + w \cdot (q - avg) \quad (1)$$

식 (1)에서 w 는 가중치, q 는 현재 버퍼 길이이다. w 가 클 경우에는 현재의 버퍼 길이가 새롭게 구해지는 avg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작을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w 가 작을수록 일시적인 폭주에도 avg 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avg 가 min_{th} 와 max_{th} 사이에 있으면 도착하는 모든 패킷을 확률적으로 폐기하게 되는데, avg 가 min_{th} 와 max_{th} 중 어느 쪽에 가까우기에 따라 확률이 결정된다.

$$P_b = P_{max} \cdot (avg - min_{th}) / (max_{th} - min_{th}) \quad (2)$$

$$P_a = P_b / (1 - count \cdot P_b) \quad (3)$$

식 (2)에 의해 구해진 확률 P_b 는 min_{th} 부터 max_{th}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최대값이 P_{max} 인 확률이다. 하지만 실제 쓰이는 확률은 식 (3)에 의해 구해진 확률 P_a 이며 이는 최근에 연속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패킷의 수($count$)를 세어 많을수록 확률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는 한 패킷을 폐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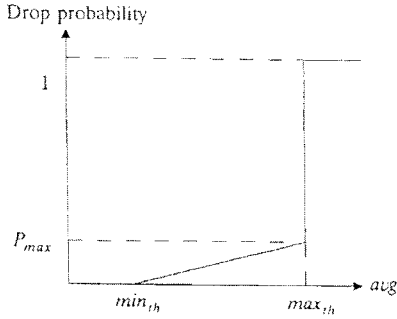


그림 1. RED의 패킷 폐기 확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을 방지한다. RED의 평균 버퍼 길이에 대한 패킷 폐기 확률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RED는 플로우별 상태(per-flow state)를 고려하지 않으며 버퍼의 상태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패킷 폐기로 인해 플로우 간의 불공정성이 나타나게 된다^{6,7)}.

한편, RIO는 사용자 별 차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준수하는 패킷의 경우는 In-profile 패킷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Out-profile 패킷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RED를 적용한다. 즉 하나의 버퍼에 In패킷과 Out패킷을 위한 두 가지 RED가 공존하게 된다. In 패킷의 min_{th} 보다 Out 패킷의 min_{th} 를 낮게 하여 In 패킷보다 Out 패킷이 먼저 랜덤하게 폐기된다. 또한 Out 패킷의 P_{max} 가 In 패킷의 P_{max} 보다 높게 하여 랜덤하게 폐기될 때 Out-profile 패킷이 폐기될 확률이 더 높게 된다. RIO 알고리즘은 대역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사용자로부터 규약을 준수하는 사용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대역의 사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다^{8,9)}. 그림 2는 In과 Out에 따라 다른 패킷 폐기 확률을 보여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RED에서는 플로우별 상태 관리가 되지 않고 여러 플로우가 한 개의 버퍼에서 관리되어 폐기되는 패킷이 어느 플로우의 패킷인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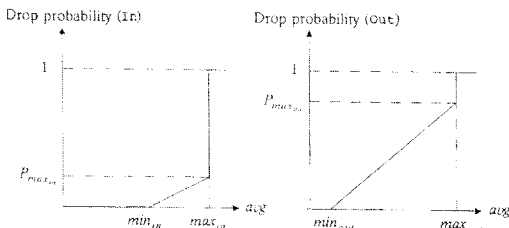


그림 2. RIO의 패킷 폐기 확률

속도를 가지면서 안정적인 플로우의 패킷도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불공정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는 RIO에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RE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FRED는 패킷을 많이 보내는 플로우의 폐기율을 더 높게 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플로우를 보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⁷⁾. FRED 알고리즘은 플로우별로 관리하는 부분과 RED와 같은 랜덤 폐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되었다.

- 현재 버퍼에 있는 $flow_i$ 의 패킷이 max_q 이상이면 폐기한다.
- avg 가 max_{th} 이상인데 $flow_i$ 패킷 수가 $2 * avgcq$ 보다 크면 패널티를 준다.
- 패널티를 2번 이상 받은 $flow_i$ 의 패킷 수가 $avgcq$ 이상일 때 폐기한다.

이는 FRED 알고리즘에서 플로우별 관리를 위하여 플로우의 특성에 따라 패킷의 폐기율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파라미터 max_q , $avgcq$ 가 추가되었다. 또한 플로우별 파라미터로 현재 버퍼에 있는 $flow_i$ 의 패킷 개수인 $qlen_i$ 와 패널티의 정도를 나타내는 $strike_i$ 변수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FRED는 플로우 간의 공정성은 향상시키지만 그 방법이 패킷을 많이 보내는 플로우에게 패널티를 주며, 패널티를 많이 받은 플로우에게 또 패널티를 주는 것이므로 항상 빠른 속도의 플로우가 패널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허용도를 플로우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BLUE는 RED와 다르게 패킷 손실과 링크 이용률(utilization)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며 임계값 없이 항상 단일 확률 P_m 에 의해 폐기된다. 오버플로우로 인한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P_m 은 일정량($d1$)씩 증가하고, 버퍼가 비거나 link idle상태에서 일정량($d2$)만큼 감소한다. P_m 의 변화는 P_m 의 최소 업데이트 시간(freeze_time)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소 업데이트 시간 동안에는 패킷 손실이나 link idle의 상황이 발생해도 P_m 은 변화하지 않는다.

BLUE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이 간단하지만 RED보다 적은 폐기율을 갖는다. RED는 실제적으로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을 플로우에 대해서도 확률적으로 폐기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날 때까지 폐기하지 않는 BLUE의 폐기율이 더 적게 된다¹⁰⁾.

그러나, BLUE도 RED와 마찬가지로 라우터의

```

Upon packet loss (or  $Q_{len} > L$ ) event:
    if ( ( now - last_update ) > freeze_time )
then
     $P_m = P_m + d1$ 
    last_update = now

Upon link idle event:
    if ( ( now - last_update ) > freeze_time )
then
     $P_m = P_m - d2$ 
    last_update = now
    
```

그림 3. BLUE 알고리즘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플로우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패킷 폐기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RIO와 유사하게 차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BIO (BLUE with In/Out)가 제안되었지만 RIO와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이 나오지는 않았다^[11].

III. 제안된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된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은 RED 알고리즘처럼 두 임계값을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패킷을 폐기하되 패킷 손실률이 임의로 정해진 목표 패킷 손실률에 수렴하도록 한다. 목표 패킷 손실률을 손실 허용치로 보아 평소에도 확률적인 패킷 폐기를 통하여 패킷 손실률을 유지시켜주며, 폭주 상태에서도 목표 패킷 손실률을 초과하는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버퍼의 상태가 최소 임계치 이하를 유지할 경우에는 패킷을 폐기하지 않는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각 플로우의 전송 속도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패킷 손실률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해당 플로우의 QoS 요구 사항에 따른 패킷 손실률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RED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중 avg , min_{th} , max_{th} 등 일부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또한, 플로우별 변수로서 플로우별 패킷 손실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플로우의 입력 패킷수를 나타내는 $count$ 가 사용되며, 플로우들을 구분하기 위한 상태 테이블 (State table)을 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플로우의 버퍼 내에 존재하는 패킷 수($qlen$)가 사용된다. 또한 목표 패킷 손실률 (LR)은 모든 플로우가 동일하게 한 개의 값만 가질 수도 있고, 플로우별 변수로 하여 각 플로우마다 다른 목표 패킷 손실률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패킷이 버퍼에 패킷이 도착하면 RED 알고리즘과 같이 EWMA에 기반 하여 식 (1)을 통해 avg 를 계산한다. 그리고 패킷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avg 와 두 임계값을 비교하며, 크게 세 가지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 $max_{th} \leq avg$ 이면 모든 패킷을 폐기하며 이를 all-drop 상태로 정의한다.
- $avg < min_{th}$ 이면 모든 패킷을 받아들이며 이를 non-drop 상태로 정의한다.
- $min_{th} \leq avg < max_{th}$ 일 때, 목표 패킷 손실률을 유지하면서 패킷을 확률적으로 폐기하며 이를 random-drop 상태로 정의한다.

이 때 사용되는 폐기 확률 P 는 $count$ 가 0 이하일 때 0, $1/LR$ 일 때 1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즉 P 는 $count$ 가 0 이하 일 때 0이며, 1 이상일 때 $LR * count$ 로 정해진다.

$$P = LR * count \tag{4}$$

확률 P 로 인해 패킷이 폐기되었을 경우, $count$ 를 $1/LR$ 만큼 감소시켜 목표 패킷 손실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count$ 값이 $1/LR$ 일 경우 폐기 확률이 1이 되어 무조건 패킷이 폐기되고 $count$ 값은 $1/LR$ 을 감소시켜 0이 된다. 그러나, $count$ 값이 $1/LR$ 보다 작을 경우 패킷이 식 (4)에 의해 확률 P 에 의해 폐기되면 식 (5)에 의해 $count$ 값이 음수가 된다. 이때 $count$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count$ 값이 0이 될 때 까지 해당 플로우에서 입력되는 패킷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begin{aligned}
 & \text{with probability } P: \\
 & \text{drop the arriving packet;} \\
 & count = count - 1/LR;
 \end{aligned} \tag{5}$$

따라서 $count$ 변수와 패킷 폐기 확률 P 의 관계는 그림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해당 플로우의 입력 패킷은 $count$ 값이 음수일 경우 폐기되지 않으며 양수일 경우에만 확률 P 로 폐기된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버퍼의 이동 방향 (drift) 개념을 통하여 패킷 폐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퍼 이동 방향은 버퍼의 현재 상태만 보지 않고 과거 상태와 비교하여 동향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사용된 버퍼 이동 방향 방법은 [9]의 "Buffer states and feedback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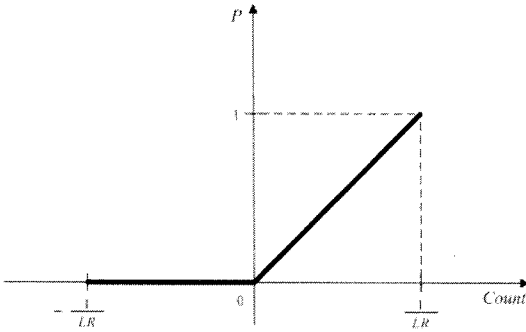


그림 4. count 변수에 따른 패킷 폐기 확률 P의 변화

과 유사하지만 피드백을 하지 않으며 두 번에 걸친 변화량 측정을 통해 최종적인 변화량을 계산하게 된다. avg를 기준 값으로 사용했으며 일정 시간마다 측정된 변화량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버퍼의 상태 변화는 그림 5와 같이 두 임계값과 avg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버퍼의 동향을 나타내는 버퍼 이동 방향 벡터(v)도 적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다음 그림 6은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기술하였고 그림 7은 자세한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어느 플로우든지 패킷 손실률이 목표 패킷 손실률(LR)에 가깝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플로우의 LR이 10^{-3} 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플로우가 보내는 패킷들은 $1 / LR$ 개, 즉 1000개 중에 1개가 폐기되게 된다. 하지만 버퍼가 안정된 non-drop 상태에서는 패킷을 폐기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000개 중에 1개 이하가 폐기되게 된다. 이는 플로우의 전송 속도와 관계없이 원하는 패킷 손실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송 속도가 높지만 패킷 손실률이 아주 낮아야 하는 실시간의 고품질 영상 서비스나 반대의 경우인 플로우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들을 위해 모든 플로우마다 목표 패킷 손실률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서비스 클래스별로 그룹화 시켜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RED나 FRED 알고리즘과 같이 서서히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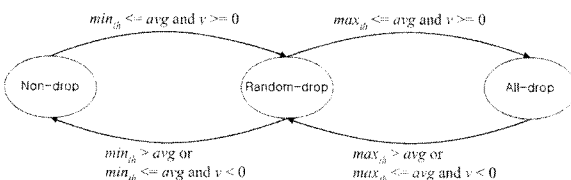


그림 5. 버퍼 이동 방향에 따른 버퍼 상태 변화

화하는 확률을 통해 패킷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번 높아진 확률이 다시 낮아지는 동안 높은 확률에 의해 패킷이 집중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random-drop 상태에서의 집중적인 패킷 폐기가 나타나지 않으며 n번째 패킷이 폐기되었을 때, 그 다음 $(1 / LR) - n$ 개까지의 패킷을 수용하여 패킷 손실률의 유지와 함께 확률에 의한 집중적인 패킷 폐기를 막아준다. 따라서 버퍼 오버플로우로 인한 무조건적인 폐기를 제외하면 $2 / LR$ 개의 패킷 중 최대 2개까지만 연속적으로 폐기될 수 있으며 발생 확률도 낮으므로 확률에 의한 집중적인 패킷 폐기가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버퍼 이동 방향 벡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패킷 폐기와 all-drop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패킷 폐기를 줄였다. 즉, avg가 max_{th} 를 넘었을 때도 버퍼 이동 방향 벡터 값을 통해 측정된 버퍼의 동향이 하향세이면 지속적으로 버퍼에 쌓이는 패킷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조건적인 폐기를 피하게 된다.

Per-flow variables:

- $count_i$: 플로우 i 가 보낸 입력 패킷수
- $qlen_i$: 버퍼내의 플로우 i 패킷 수
- LR_i : 플로우 i 의 target loss ratio
- p_i : 플로우 i 의 패킷 drop 확률

Global variables:

- q : 현재 버퍼 길이
- min_{th} : 최소 임계값
- max_{th} : 최대 임계값
- w : 가중치
- avg : 평균 길이

Buffer drift variables:

- v : 최종 변화 벡터
- v_{t-1} : 이전 벡터
- v_t : 현재 벡터
- avg_{t-1} : 이전 avg 값
- Δt : 단위 시간

그림 6. 제안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

for each packet arrival:
    if the packet is new  $flow_i$  {
        initialization;
         $count_i = 0$  ;
         $qlen_i = 0$  ;
    }
    Calculate new average buffer length  $avg$  ;
     $avg = (1 - w) * avg + w * q$  ;
    Increment  $count_i$  ;

    if (  $count_i > 0 \ \&\& \ ((v >= 0 \ \&\& \ min_{th} <=$ 
 $avg < max_{th}) \ \parallel \ (v < 0 \ \&\& \ max_{th} <= avg))$  ) {
        calculate probability  $p_i$  :
         $p_i = LR_i * count_i$  ;
        with probability  $p_i$  :
            Drop the arriving packet;
             $count_i = count_i - 1/LR_i$  ;
            return;
    }
    else if (  $v >= 0 \ \&\& \ max_{th} <= avg$  ) {
        Drop the arriving packet;
        return;
    }

    Insert the arriving packet into the buffer;
    Increment  $qlen_i$  ;

for each packet departure:
    Calculate new average buffer length  $avg$  ;
     $avg = (1 - w) * avg + w * q$  ;
    Decrement  $qlen_i$  ;

Calculate Buffer drift ( $\Delta$ ):
     $v_t = avg - avg_{t-1}$ 
     $v = v_t - v_{t-1}$ 
     $v_{t-1} = v_t$ 
     $avg_{t-1} = avg$ 
    
```

그림 7. 제안된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

IV. 성능 분석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
Buffer size	100
min_{th}	25
max_{th}	70
min_q	4
P_{max}	0.02
w	0.002
LR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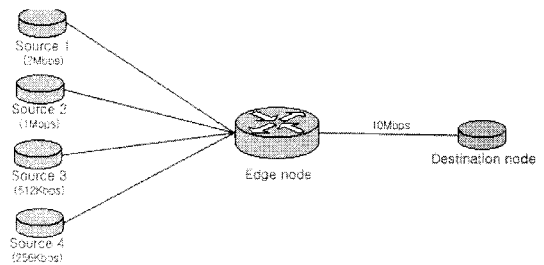


그림 8. 시뮬레이션 모델

시뮬레이터 ns-2를 이용하였다^[12]. 비교 대상으로는 유사하게 최소, 최대 임계값을 사용하는 RED, FRED 알고리즘을 택했다. 사용된 프로토콜은 UDP이고, 입력 트래픽은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 트래픽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표 1에 기술되었다.

여기서, P_{max} 는 RED, min_q 는 FRED, LR 은 제안된 알고리즘 전용 파라미터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그림 8과 같다. 이 모델은 지수 분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소스들이 있으며, 전송률에 따라 256 Kbps, 512 Kbps, 1 Mbps, 2 Mbps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소스들은 성능 분석용 버퍼가 있는 에지 라우터를 거쳐서 목적지 노드까지 패킷을 전송한다. 이 때, 각각의 소스들과 라우터간의 링크 대역폭은 이 구간에서 패킷 손실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에지 라우터와 목적 노드와의 링크 대역폭을 10 Mbps로 하여 병목현상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하는 출력 링크 (10 Mbps) 대비 입력 트래픽의 비율로 정의하였고 입력 부하를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각 소스의 입력 플로우 개수를 늘려 정의하였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하 별로 각 플로우의 패킷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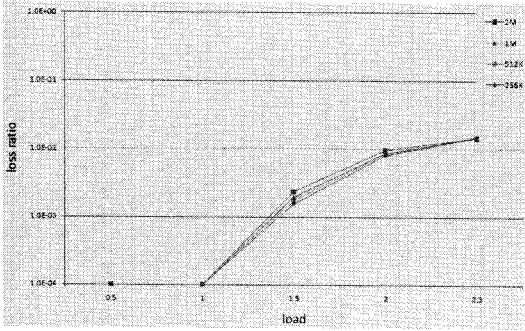


그림 9. 부하에 따른 RED의 패킷 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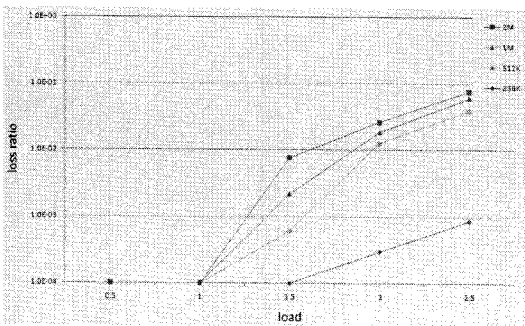


그림 10. 부하에 따른 FRED의 패킷 손실률

실률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패킷이 폐기되지 않는 non-drop과 random-drop 상태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9는 RED에 대한 패킷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다. RED는 각 플로우별로 상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내면 많이, 적게 보내면 적게 패킷이 폐기되고 각 플로우별로 측정된 패킷 손실률도 비슷하게 폐기된다. 또한 부하가 커질수록 패킷 손실률도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FRED에 대한 패킷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FRED는 기본적으로 RED의 특성과 유사하게 부하가 커질수록 패킷 손실률도 커지는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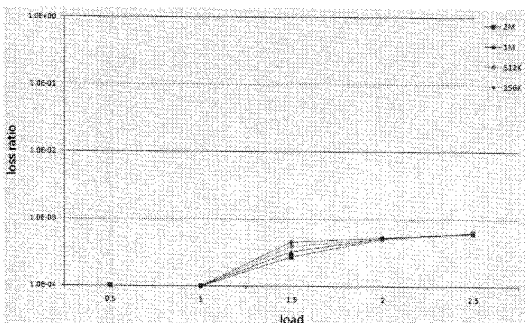


그림 11. 부하에 따른 제안된 알고리즘의 패킷 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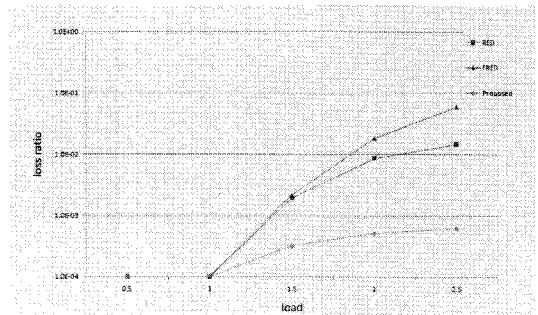


그림 12. 1 Mbps 플로우에 대한 각 알고리즘의 패킷 손실률 비교

과를 나타낸다. 또한 전송 속도가 높은 플로우에게 페널티를 주어 더 많이 폐기하고 반대로 전송 속도가 낮은 소스는 거의 폐기하지 않는 FRED의 특징도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1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한 패킷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플로우의 목표 패킷 손실률을 10^{-3} 으로 정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플로우들에 대해 측정된 패킷 손실률이 목표 패킷 손실률로 설정한 10^{-3} 을 넘지 않도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플로우의 패킷 손실률은 목표 패킷 손실률에 맞춰지도록 폐기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1 Mbps 플로우에 대해 각 알고리즘들의 패킷 손실률을 비교한 결과로서 각 알고리즘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낮은 패킷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13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장점인 각 플로우별 목표 패킷 손실률을 다르게 설정하여 플로우별 패킷 손실률을 조절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에서 각 플로우들의 목표 패킷 손실률은 2 Mbps 플로우들은 10^{-4} , 1 Mbps 플로우들은 10^{-3} , 512 Kbps와 256 Kbps 플로우들은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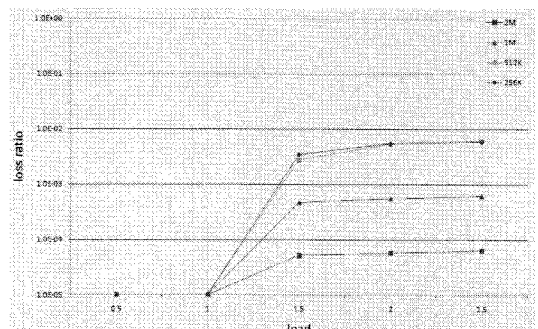


그림 13. 플로우 별 목표 패킷 손실률에 따른 패킷 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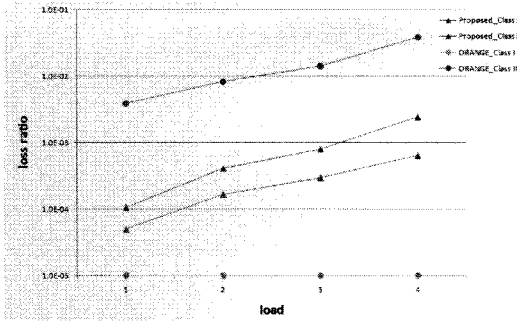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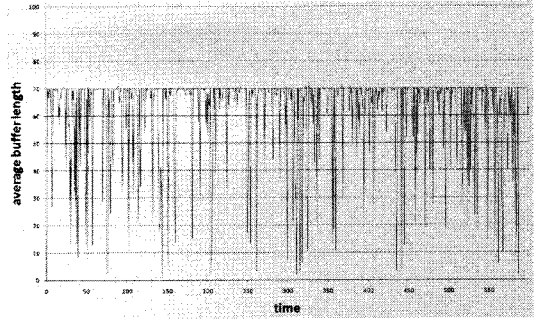
그림 14. 클래스 별 목표 패킷 손실률에 따른 패킷 손실률

으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각 플로우들의 전송 속도와는 관계없이 원하는 목표 패킷 손실률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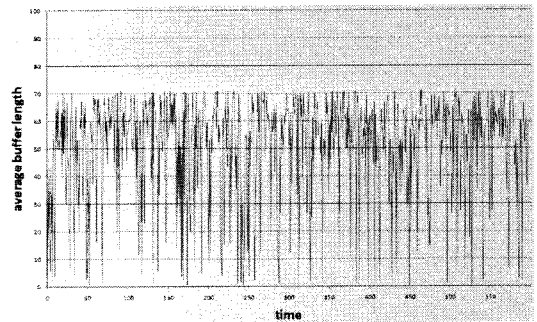
그림 14는 클래스별 QoS 제공이 가능한 ORANGE 알고리즘^[13]과 패킷 손실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클래스 I은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이고 클래스 II는 지연이 허용되는 데이터 서비스를 나타낸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ORANGE 알고리즘은 실시간이 요구되는 클래스 I에 대해서는 패킷 손실이 없이 전송되지만 클래스 II에 대해서는 부하가 커짐에 따라 패킷 손실률이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은 클래스별로 목표 패킷 손실률을 정하여 클래스 I에 대해서는 10^{-3} , 클래스 II는 10^{-2} 로 설정된 목표 패킷 손실률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폭주 상태(부하=2)일 때 각 알고리즘들의 평균 버퍼 길이(avg)의 변화를 보여준다. RED와 FRED 알고리즘에서는 avg가 max_{th} 인 70을 넘으면 무조건적으로 패킷을 폐기시킨다. 따라서 실제 버퍼 길이는 avg가 70 이하로 유지된다. 그림 15는 폭주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avg가 70 이하로 떨어져도 곧바로 실제 버퍼 길이가 커지게 되며 avg도 곧 70을 넘게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avg는 max_{th} 인 70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며 이는 그림 15의 (a)와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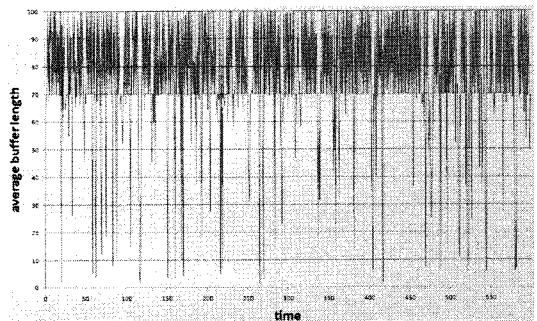
한편,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버퍼 이동 방향 벡터를 사용하므로 avg가 max_{th} 인 70을 넘었을 경우 버퍼 이동 방향 벡터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적으로 패킷을 폐기하지만 버퍼 이동 방향 벡터값이 0보다 작으면 확률적인 폐기를 하게 된다. 따라서 avg가 max_{th} 를 넘었어도 무조건적으로 패킷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버퍼 사용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15의 (c)에서는 avg가 70을 넘으면 무조건적으로 폐기하다가 그 영향으로 버퍼



(a) RED 알고리즘



(b) FRED 알고리즘



(c) 제안된 알고리즘

그림 15. 폭주 상태에서 각 알고리즘의 평균 버퍼 길이(avg)의 변화

이동 방향 벡터가 하향세가 되면 이를 멈추게 되어 실제 버퍼 길이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avg는 70을 잠시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며 안정을 찾게 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혼잡 제어를 위하여 IETF에서 권고한 RED 알고리즘과 이 RED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FRED, RIO

및 BLUE 알고리즘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인터넷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QoS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버퍼 관리 알고리즘들의 장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 QoS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QoS 적응형 AQM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 버퍼 관리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 QoS 요구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각 flow별로 전송량과 무관하게 목표 패킷 손실률을 최대한 유지시켜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ns-2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RED 알고리즘, FRED 알고리즘 및 제안된 알고리즘 간의 성능을 비교분석 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RED 알고리즘은 플로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며, FRED 알고리즘은 플로우의 전송량에 따라 차별적인 패킷 폐기 확률을 적용시킨다는 것에 반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전송량과 무관하게 각 플로우의 손실률이 목표 손실률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클래스별 관리가 가능한 ORANGE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클래스별로 목표 손실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1] Ja-Hon Koo, Woong-Chul Choi, Kwang-Sue Chung, "A New Queue Management Algorithm Improving Fairness of the Internet Congestion Control,"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 정보통신, vol. 30, no. 3, Jun. 2003, pp. 437-447.

[2] Pal-Jin Lee, Jin-Young Yang, "A Packet Dropping Algorithm based on Queue Management for Congestion Avoidance," 한국인터넷정보과학회논문지, vol. 3, no. 6, Dec. 2002, pp. 43-51.

[3] An-Ki Min, Jung-Bong Suk, "A Traffic Management Scheme for the Scalability of IP QoS,"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 정보통신, vol. 29, no. 4, Oct. 2002, pp. 375-385.

[4] Sung-Cheol Park, "DiffServ QoS Support in DSL Broadband Access Networks," 한국정보처리학회 논문지, vol. 13, no. 5, Oct. 2006, pp. 613-620.

[5] B. Braden, et al., "Recommendations on Queue

Management and Congestion Avoidance in the Internet," RFC 2309, Apr. 1998.

[6] Jae-Hyun Nam, "Improve ARED Algorithm in TCP/IP Netwo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 12, no. 3, Jul. 2007, pp. 177-183.

[7] Dong Lin, Robert Morris, "Dynamics of Random Early Detection," Proc. ACM SIGCOMM., Sep. 1997, pp. 127-137.

[8] David D. Clark, WenjiaFang, "Explicit Allocation of Best-Effort Packet Delivery Service,"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vol.6, no.4, Aug.1998, pp.362-373.

[9] H. Jonathan Chao, Xiaolei Guo, QUALITY OF SERVICE CONTROL IN HIGH-SPEED NETWORKS, 2002, pp.214-297.

[10] Wu-chang Feng, Dilip D. Kandlur, Debanjan Saha, Kang G. Shin, "BLUE: A new class of active queue management," Univ. Michigan CSE-TR-387-99, Apr. 1999.

[11] Bahri Okuroglu, Sema Oktug, "BIO: An Alternative to RIO," SPIEIT Com: Int'l Symp. Convergence of IT and Comm., Denver, USA, Aug. 2001, pp.4524-4532.

[12] "The Network Simulator - ns-2," <http://www.isi.edu/nsnam/ns/>.

[13] Sung-Wook Kim, Sung-Chun Kim, "An Online Buffer Management Algorithm for QoS-Sensitive Multimedia Networks," ETRI Journal, vol. 29, no. 5, Oct. 2007, pp. 685-687.

강 현 명 (Hyun-Myung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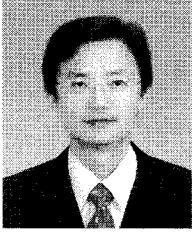
정회원



2008년 2월 국립한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졸업
 2008년 3월~현재 국립한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석사 과정
 <관심분야> 게임엔진, IP QoS, Mobility management, Mobile 멀티캐스팅

이 우 섭 (Woo-Seop Rhee)

중신회원



1983년 2월 홍익대학교 전자계
산학과 졸업

1995년 8월 충남대학교 전산과
학과 석사

2003년 8월 충남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박사

1983년 3월~2005년 3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광대역통합망연구부 팀장/책임연
구원

2005년 3월~현재 국립한밭대학교 정보통신컴퓨터공
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정통부 지정 국제표준 전문가, ITU-T SG13 한국대
표, TTA 광인터넷 PG 의장 역임

<관심분야> 유무선통합망구조, 멀티캐스팅, IP QoS,
Mobility management, Mobile 멀티캐스팅